

## 뷰파인더 너머 좋은 사진을 향해

**K** 국제신문

김영훈 기자



단오를 앞두고 6월8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박물관에서 열린 '더위야 물렀거라! 수릿날과 단오부채'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이 부채를 꾸미고 있다.

2023년 6월8일 단오 행사 사진 취재를 위해 부산대학교를 방문했다. 단오를 앞두고 매년 부산대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화살 쏘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와 부채 꾸미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흔히 말하는 그림이 되는 현장은 아니었다. 사진의 주 내용은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부채를 꾸미는 학생들의 모습이라 판단했다. 마침 수업이 끝나 행사장을 기웃거리는 학생들이 부채 꾸미기에 관심을 보여 취재를 시작했다. 다양한 앵글과 화각, 그리고 가로세로 컷을 위해 학생들 사이로

이리저리 카메라를 대보며 사진을 찍었다.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 아직 부채 길이 허전해 학생들이 꾸미기 때까지 기다렸다.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다 한 학생이 나에게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다. 학생의 의도는 SNS에 쓸 적당한 사진을 위한 가벼운 질문인 듯했지만, 사진기자로서는 쉽사리 대답이 나오기 힘든 질문이었다. 그의 질문이 '예쁜 사진'이 아닌 '좋은 사진'이라 더욱 어렵게 느껴졌다.

잠깐의 사색을 멈추고 스마트폰 카메라



'더위야 물렸거래 수릿날과 단오부채' 행사 모습

라를 켜 시범을 보였다. 화각이 넓은 광각 렌즈는 프레임 중앙을 기준으로 상이 길어 보이는 왜곡이 생긴다. 이 특성을 활용하면 인물의 비율이 좋아 보인다. 명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망원렌즈를 사용해 먼저 배경을 프레임 안에 둔다. 그 앞에 인물을 배치한 뒤 걸음으로 거리를 조절한다. 인물이 명소를 가리지 않는 정도가 되면 사진에 심도가 생겨 입체감이 생긴다.

명색이 사진기자라 이처럼 기술적인 방법을 한껏 설명했지만, '좋은 사진은 뭘까'라는 물음은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취재를 끝내고 내일 자 신문에 들어갈 사

진을 확인한 뒤 집으로 향했다. 답을 찾지 못한 물음을 품은 채 일과를 마쳤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2014년 11월7일 부산 범어사의 돌담길. 그곳에서 태양을 반역광 삼아 어머니가 내려가는 사진을 찍었다. 햇살은 대나무와 계단, 그리고 어머니의 뒷모습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날 어머니는 수험생이던 형을 시험장에 보낸 후 기도를 드린 뒤 떠나던 차였다. 정성스레 기도를 드렸지만, 질게 진 그림자처럼 아들 걱정이 무거운 어머니는 땅만 보며 걸으셨다. 반년간 셔터를 만지고 필름을 감았던 노력 덕분인지 당신의 걱정을 렌즈에 온전히 담



2014년 11월7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에서 어머니가 첫째 아들 수능기도를 드린 뒤 돌담길을 내려가고 있다.

아낼 수 있었다. 어머니를 찍은 사진이 당시 나의 가장 좋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전공으로 선택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보고, 찍고, 다듬는 과정은 단순한 취미보다는 일상에 가까웠다. 신입생이던 스무 살 때는 매년 하는 재학생 전시회에 사진을 출품했다. 그러나 언제나 칭찬만 받던 나의 사진을 두고 관람객들은 냉정했다. 그들이 나의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은 5초를 넘기지 못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전시가 당장이라도 끝나길 기도했다. 동시에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반드시 졸업 전 개인 전시회를 열어 사람들이 나의 사진에 집중하게 만

들 것이라고.

그날의 다짐은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이어졌다. 집 주변 재개발 풍경을 기록한 <도시기억상실증>이라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준비했다. 사진작품은 도시는 기억되는 속도보다 빨리 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대학 4학년 때 운 좋게 부산문화재단의 우수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전시를 위해 2년간 광 어럽사리 찍은 사진을 쏟아내고, 골라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전시에 내놓을 사진이 마땅치 않았다.

그날의 창피를 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 전시 3개월을 앞두고 재개발 지역 이곳저



김영훈, 도시지역상실증(문헌, 150x100cm, inkjet print, 2021)

곳을 쏘다녔다. 그러다 마음에 쏙 드는 사진 한 장을 마주하게 됐다. 부산 남구 우암동은 한창 재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가구는 아직 이사를 못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암동 산등성이는 별거승이가 됐다. 그 풍경이 기괴해 망원렌즈로 반대편 산에서 별판이 된 산등성이와 높이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를 찍었다. 그리고 아직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주택을 촬영했다.

촬영물을 LCD 창으로 보다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철거를 앞둔 건물 외벽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나는 다시 파인터를 보고 셔터를 마구 눌렀다. 원주민이 남아있는 가운데 무정하게 올라가는 아파트. 무너지는 것과 지어지는 것 사이의 긴장감. 이 사진이 전시의 메인이 될 거라 자신했다.

전시 당일이었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11일간 250여 명의 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우암동에서 찍은 사진은 가로 150cm, 세로 100cm의 원목 액자에 넣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 유리까지 끼워 넣었다. 그 사진이 당시 나의 가장 좋은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전시를 끝낸 뒤 좋은 사진은 독자들을 위한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그때부터 순수사진이 아닌 보도사진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다.

지난해부터 사진기자로의 업을 시작했다. 보도사진은 그간 찍어온 사진과는 달랐다. 보도사진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 취재현장에 있던 일들을 사진으로 전달해야 한다. 사진가가 아닌 기자의 시선이 필요하다. 내 주관과 표현방식이 중요하던 이전의 사진과는 달랐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의도하는 바가 와닿아야 한다. 그래서 선배들의 사진을 보며 공부했다. 정확히는 선배들의 '좋은 사진'을 보며 공부했다.

세상에 이미 '좋은 사진'이 많았다. 2016년 11월7일 자 조선일보 1면 사진.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모습을 포착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진 기사였다. 2021년 1월19일 한겨레신문 1면. 한 시민이 거리노숙인에게 본인의 방한 점퍼와 장갑을 벗어주는 사진은 아직 사회에 온정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해줬다. 동아일보의 한 선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 행렬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까지 10인의 대통령을 찍은 사진을 책으로 엮어냈다.

지금까지 사진기자를 하며 찍은 사진 기사를 되돌아보았다. 얼굴이 화끈거

렸다. 차마 다시 보기 부끄러울 정도였다. 중요한 순간에 초점이 나간 사진,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긴박하게 이동하다 감도를 조절하지 않아 과다노출 된 사진,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해 인물의 시선이나 방향들이 한곳으로 모이지 못해 집중이 안 되는 사진 등등. 쓰지 못할 사진이 한가득했다. 자랑할 만한 사진까진 아니더라도 스스로 흡족할 만한 정도의 사진을 찾고 싶었다. 그간 많은 현장을 다녔다 생각했지만 결과는 아직 부족했다.

그러다 잊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한 노인정에서 열린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사진이었다. 어르신들은 옛날 교복을 입고 간식과 윗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장소는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벽면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그 앞에는 윗놀이가 준비돼 있었다. 다 차려놓은 배경에 카메라만 들면 됐다. 어르신들께 '하나, 둘, 셋 하면 윗을 던져주세요'라고 요구했다. 밝은 표정과 더불어 적당한 윗의 높이가 어우러질 때까지 여러 번 그 순간을 포착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 지금까지 누군가 수없이 보도했던 사진들과 유사한 사진을 찍었다. 내가 찍은 사진이지만 내 사진이 아니다. 만족스럽지 못했다.

다음 일정까지 40분가량 여유가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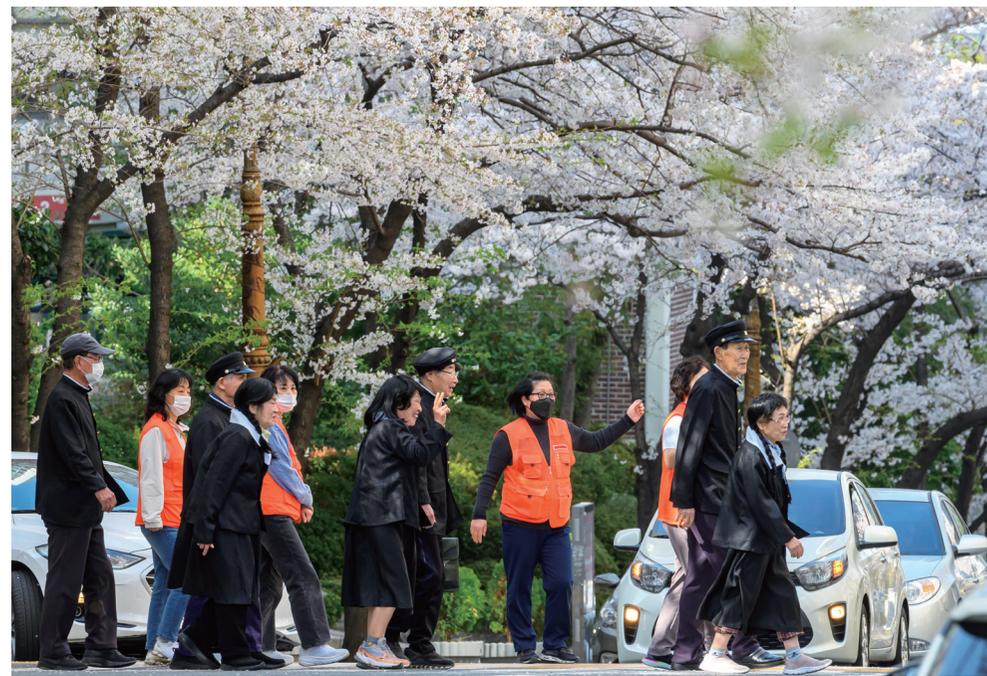
2023년 3월28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경로당에서 교복을 입은 어른들이 학창 시절에 즐기던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 노인정에 들어오기 전 만개한 벚꽃나무가 뇌리를 스쳤다. 마침 노인복지사 선생님도 어른들의 벚꽃 구경을 제안했다. 어른들이 야외로 나오기 전 먼저 포인트가 될만한 곳을 보고 있었다. 몇 분은 노인복지사 선생님 부축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다. 어른들이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사진을 찍는 게 편치 않았다. 그 노고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사진을 확인하려 LCD 창을 돌려 봤는데 어른들이 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로 벚꽃을 보고 있었다. 내 얼굴에도 미소가 드리웠다.

‘그래 이거다’

그 미소가 교복을 입었던 그때로 시간을 돌려 놓았다. 신난 마음에 어른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렸다. 어른들은 화면을 보며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셨다. 이 사진이 사진기자가 된 뒤 찍은 가장 좋은 사진이다.

나는 그동안 대단한 사진을 찍고 싶었던 게 아닌지 생각했다. 세상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사진만 쫓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선배들이 보인 대단한 사진 이전의 사진들은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일정의 경중을 입맛대로 가리며 성의 없이 취재하지 않았는지 행동



2023년 3월28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경로당 인근 도로에서 어른들이 추억의 교복을 입고 벚꽃 소풍에 나서고 있다.

돌아보았다. 좋은 사진은 사회적 관심이 큰 현장에서만 나올 거라는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제야 사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

“오늘도 무수히 많은 일이 벌어지는 세상을 뷰파인더를 통해 사진으로 기록하는 저희는 사진기자입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사진기자를 소개하는 문장이다. 내가 취재한 사진은 순간이 영원으로 기록된다. 기록은 역사가 되고 훗날 오늘을 증명한다. 그렇기에 중

요한 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도 없다. 렌즈 앞 피사체에게 기록의 책임을 느낀다. 1년 차 사진기자인 나의 목표는 시간이 지나 다시 보아도 부끄러움 없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 나는 내일도 어김없이 현장에 간다. 현장을 살피고 적합한 렌즈를 카메라 바디에 결합한다. 눈을 뷰파인더로 가져다 댄다. 앵글과 구도를 잡는다. 남기고 싶은 순간을 기다린다. 호흡을 차분히 고른다. 검지로 살포시 셔터를 누른다. 지금이다. 찰칵 📷

국제신문 김영훈 기자